

종교개혁 503주년기념 / 오순절 후 스물한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1<sup>TS</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10월 2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4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3 번 마태복음(Matthew) 6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Hebrews) 13:1-8 박경림 집사

설 교 Sermon “**슬기로운 생활신앙**” 김일선 목사  
(The Faithful Life of God’s Faithful People)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27 장 “내가 매일 기쁘게” (새 19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보지만,

우리는 자주 세상과 타협했고, 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언급하면서도,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고,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신앙의 핵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매순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글개역 **히13:8**)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NIV **Hebrews 13: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25 (주일)	10/26 (월)	10/27 (화)	10/28 (수)	10/29 (목)	10/30 (금)	10/31 (토)
	왕하6	왕하7	왕하8	왕하9	왕하10	왕하11,12	왕하13
본문	딤후3 단10	딤후4 단11	딤후5 단12	딤후6 호1	딤후1 호2	딤후2 호3,4	딤후3 호5,6
	시119:1-24	시119:25-48	시119:49-72	시119:73-96	시119:97-120	시119:121-144	시119:145-17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28 오후7:30)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민 29:12-16)
토요 새벽기도회 (10/31 오전6:30)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시 121:8)

지난 주일(10/18) 말씀 – 박대웅 목사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적 거리두기" (신 31:6-8, 마 14:22-33)**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 예수님께서서는 폭풍 중에 고통받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2)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이를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 19라는 폭풍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역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의 기본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 검사 (Test) 2)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3) 손씻기 (Washing Hands) 그리고 4) 마스크 착용 (Wearing Mask)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후 13:5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했고, 또한 잠 6:16-19에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지는 7가지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함을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영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이 방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찌든 죄악이 더이상 우리 안에 남지도 않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도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재발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